

Ube, Nylon6 11만6000톤으로 확장

일본 · 타이 · 스페인 생산능력 증설 ... 신제품 개발 병행 수익 극대화

Ube Industries가 핵심사업인 나일론(Nylon) 및 Compound의 세계 생산거점 증강에 나선다.

나일론 6은 스페인에서 1만5000톤의 No.2 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며 No.1 라인도 5000톤을 증설해 2006년까지 총 3만톤 생산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

타이에서도 2004년 4000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어 2006년에는 일본을 포함한 3개 거점에서 총 11만6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나일론 12는 일본에서 2500톤 증설해 2006년까지 1만2000톤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스페인에서도 현지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Compound는 일본에서 S&B(Scrap & Build)를 실시해 2004년 상반기까지 20% 증가한 1만7000톤으로, 타이에서는 2배 증설해 2006년7에 1만2000톤 생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Ube는 나일론 생산능력 증설과 함께 신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수익을 최대화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Ube Industries는 CPL(Caprolactam) 등의 원료-나일론 중합-Compound까지 일관 생산체제를 갖춘 세계 최대기업으로, 고객의 글로벌 생산확대에 대응해 현지에서 일관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 아래 Ube 공장 및 타이에 원료에서 Compound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생산체제를 구축했으며 스페인에서도 원료-나일론 중합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포장필름 등 압출용이나 사출성형 용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나일론 6 중합부문은 2003년 Ube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3000톤 증설한 6만1000톤 생산체제를 수립했다.

타이에서도 4000톤 증가한 2만5000톤으로 증설할 방침 아래 2004년 9월 공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가동할 계획이다.

스페인에서는 현재 신설중인 No.1 라인의 원료 Feed 확인작업을 하고 있어 6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또한 유럽 및 미국의 수요증가에 대비해 No.1 라인의 부지에 No.2 라인을 증설할 계획으로 2006년 1만5000톤을 가동할 예정이다. 그 후 No.1 라인도 5000톤 증설해 총 3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스페인에서는 기술 서비스를 포함한 연구개발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으며, Compound는 당분간 위탁생산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나 독자적인 생산설비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

나일론 12도 Ube 공장 생산능력을 추가 증설하는 한편, 스페인에 중합설비를 신설하는 문제도 계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Ube는 타이의 Compound 설비 증설도 추진해 신제품 개발과 함께 전체 수익을 극대화해나갈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4/07/02>